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새구상

— 캐나다 —



캐나다 에그 마케팅 에이전시(CEM A)는 최근 국내의 난가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마련 하였다. CEMA의 관계자가 얼마전 토론토에서 열린 몬토리오 양계회의에서 발표할바에 의하면 이 새 제도는 늘어나는 양계장의 부채를 막기 위하여 곧 실시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다.

이 CEMA의 구상 이란,

1. 각주(州)는 계란생산량의 할당을 받으며,

2. 이생산량은 CEMA가 계란생산 원가를 감안한 난가를 보장 한다.

3. CEMA는 캐나다의 생산 필요량을 초과 하는 분량에 대하여는 국내의 시장으로부터 격리함으로써 국내 난가를 유지 시킨다.

CEMA의 운영비는 생산자가 판매 하는 모든 계란에 부과금을 부과하므로써 재원을 얻고 있으며, 최근까지는 타스당 2센트였는데 조금 인상할 것 같다고 한다.

肉牛業界不況에대한 自活策으로 牛肉消費促進協議會 推進

— 미국 —

유류파동이후 계속되고 있는 축산물수요감소 현상은 미국육우업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集牛入殖數의 減少, 屠殺頭數의 增加, 牛肉在庫增加, 牛肉消費減少등으로 인하여 牛肉價格은 肉牛生産費에 미달하는 형편이며 따라서 육우산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면은 75년 중반에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왔는데, 요즈음의 전망으로는 76년도로 그 시기가 지연될 것 같다고 한다. 미국의 육우업계는 작년도 이래 계속되는 불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회합을 거듭한 끝에 전국양육가협회(ANCA)건의에 따라 미국우육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우육협의회는 우육관계단체의 공동 발의에 의하여 전국 규모로 활동할 것을 전제로 하는바 국내의 우육 관계조사연구, 소비촉진활동및 교육을 주업무로 하고 소요자금은 도살당시 두당 일정율을 공제적립한 기금으로 충당할 것이라 한다. 업계는 이와같은 일련의 활동에 대하여 의무적인 참여를 법제화함은 물론 전국양육가 협회로 하여금 전담기구 조직을 추진케 하고있다.

E. C 사료수입감소

EC(歐州共同體)의 탈티노와 농업담당위원은 얼마전 미국의 한발로 인한 농산물 감소가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부츠 미농무장관을 위시한 고위 관리들과의 일련의 회

담을 마치고 미국으로부터의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곡물의 수입량을 약 10%정도 삭감할 것이라는 것을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즉,

1. 부트셀에서 EC의 미국산 옥수수의 수요를 삭감하기 위한 제안을 한다.

2. 한발로 인한 수확 감소의 예상 때문에 미국이 곡물소비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EC)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C는 금년 옥수수를 비롯한 미국산 사료곡물은 4억 톤 이상이나 사들였으며 이는 미국의 전 수출량의 약 1/3에 해당된다.

3. EC는 사료곡물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하여 가금류 배지 등을 중심으로 가축사육의 삭감을 시도할 생각이다. 우리의 영향력이 작용 가능한 것은 옥수수의 소비를 줄이는 반면 사료용 소맥 등 다른 곡물의 소비를 늘리는 일이다.

E.C 금년 곡물수확 대폭

EC는 금년도 곡물수확량이 종전 추계보다 1.4백만톤이 늘어난 107.9백만톤으로 기록적인 증산을 이룰 것이라고 지난 10월 30일에 발표하였다.

한편 옥수수 생산량은 작년 실적 16.2백만톤보다 감소한 14백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